

# 영암교육청, '탄탄하고 참신한 2021 학교교육계획'

### 교육계획수립·새학년 집중 준비기간 운영 위한 의견 나누 '역점과제' 학교교육계획에 녹여낼 수 있는 방안 대해 고민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2021학년도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 운영을 위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6일 관내 중학교 교무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계획 함께 만들기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영암교육 2021의 역점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2021학년도에 영암교육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과제를 학교 교육계획에 녹여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였다.  
올해 영암교육의 역점과제는 '함께 성장

하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수업혁신',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혁신',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SW교육'으로, 이날 협의회에서는 4가지 역점과제에 대해 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교육활동 유형 및 사례에 대해 경험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올해에 영암교육지원청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SW교육'에 대한 학교의 높은 관심 속에, 환경교육과 SW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요청과 의견이 오고간 가운데,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블렌디드 수업 연구, 우수 사례 공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월 9일에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에서 이를 반영하여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탄탄하고 참신한 2021학년도 학교교육활동'을 세우는 시간으로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가정 '1년을 함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으며, 지역체험활동 운영 계획

에 대한 의견, 교육계획서 작성 간소화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누었다.  
영암교육지원청 김성애 교육장은 "작년 한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준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며, "신축년 새해에는 영암의 모든 학교가 안정된 상황에서 영암교육이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더 나은 재건'을 이루어,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 전라남도국제교육원, '중등영어교사 단기 직무연수'

### 강의 및 실습·워크숍 형태로 진행

전라남도국제교육원(원장 고미영)에서 중등 영어교사 14명을 대상으로 2021년 첫 연수인 '중등영어교사 단기 직무연수 1기'를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동안 진행한다.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5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 수업과 관련한 중등영어교사들의 영어수업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중·고등학교 영어수업에 특화된 내용들을 강의 및 실습,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되며, 2기 연수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연수과정은 최근에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교실수업개선을 핵심으로 영어과 교사들이 수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경기군자디지탈과학교 김종신 교사의 '2021학년도 영어교육 과정 디자인', 경기늘푸른중 임성은 교사의 '영어과 프로젝트 수업과 수행평가 방법', 그리고 국제교육원 소속 원어민 강사들의 교수법 등이다.  
연수에 참여한 순천별량중학교 김가경 교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학생

참여수업과 교실 속 활동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실제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과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영어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국제교육원은 2021년에 'JLP 중등영어교사 6개월 심화연수'를 비롯한 초·중등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20여개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중등영어교사의 수업역량을 강화하여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 진도교육청, '나도강사! 나도저자!' 책 출판 교사 간담회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포)은 지난 7일 2020. 나도강사! 나도저자! '교실혁신 전남교사, 한 권의 책이 되다' 책 출판 교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배로운 교사생활', '선생님의 8시간', '고사리의 꿈을 집필한 세 팀의 전문적학습공동체 교사들이 책의 기획부터 학교혁신에 대한 고민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교혁신은 교실에서 묵묵히, 치열하게 아이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교사의 삶"이라는 생각으로 '보배로운 교사생활(이성호 외 4명)'을 기획한 이성호(진도서초) 선생님은 진도의 서로 다른 작은 학교에서 학교혁신을 꿈꾸는 선생님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숨어있는 교사들이 만났고, 이후 "같은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과 만나 토론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성장했다"고 말했다.  
학생들과 시작하는 아침 첫 만남부터 하교, 수업연구와 준비까지 선생님의 하루를 다양하고 재미있게 구성한 '선생님의 8시간(이규민 외 4명)'은 교육과정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



천한 선배교사부터 2020년 새내기 신규교사까지 힘을 모은 책이다.  
"교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김연중(석교초) 선생님은 "후배 교사들의 열정과 재능이 더해져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치열하게 헌신하는 교사들을 만나는 것은 감동적이고 설레는 일"이라는 이문포 진도교육장은 "진도교육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실천하는 교사들이다."라며 2021년에도 진도학교혁신에 함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화순교육청, 광주교대 예비교사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기초학력 향상 및 진로 탐색 멘토링 프로그램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은 지난 4일부터 29일까지 광주교육대학교 예비교사 대학생과 3개 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기초학력 향상 및 진로 탐색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지난 겨울, 여름방학에 이어 세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화순교육지원청과 광주교육대학교가 교육협력을 통해 지역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과 진로 탐색에 기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협력 사업의 몰도넬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화순교육지원청에서는 코로나19에 대비해 학교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와 멘토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지침 준수를 사전연수에서 안내하여 안전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광주교육대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지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



이 있는 멘토를 선정하여 방역수칙 준수 및 멘티와의 관계형성, 안전한 출퇴근 등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평초 학생은 "대학생 선생님과 공부도 하며, 직업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면서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광주교육연수원,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 직무연수

광주교육연수원이 18~22일 2월 초·중·고 총 11교를 대상으로 2021년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 직무연수 '웃으며 소통하는 소소(笑疏)한 상생 과정'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속 겨울방학을 맞아 실시되는 이번 직무연수는 현장 교원의 안전을 지키며 효율적인 직무역량 강화 기회 마련을 위해 연수 강사와 연수 담당자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강의로 진행된다. 오는 18일 용주초에서 시작되고, 2월22일 미산초에서 마무리되는 직무연수는 교원의 연수 접근성을 높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연수혁신 실현을 위해 마련

됐다. 최근 상담 및 치유가 필요한 학생 증가로 지도 교사들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상담 및 생활교육 방법에 대한 연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감 및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증가하면서 새학년을 준비하는 교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원 상담 및 소통 역량 신장을 위해 상담과 생활교육을 주제로 학교로 찾아가는 직무연수를 기획했다.

조인호 기자

